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는 '00년 1회 회의(일본 도야마현)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무역·투자·산업협력 확대에 기여
- 총 21회 한국 1,423명, 일본 1,908명 합계 3,331명이 참가

- 1) 목적 : 한·일(호쿠리쿠) 지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확대
- 한국 동해권 4개 지역과 일본 호쿠리쿠(北陸) 3개 지역의 지역간 교류협력을 통해 자본·기술·인재 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고,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
- 2) 일시 : '25. 8.24(일)~27(수), 3박 4일 * 본회의 : 8.26(화)
- 3) 장소 :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ANA 크라운플라자호텔 가나자와
- 4) 참석자 : 양국 정부대표(韓 산업부, 日 중부경제산업국)·기업 등 총 114명
- 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재)대구정책연구원 대구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 (주)동진생명연구원, 울산항만공사, (사)한국시멘트협회 등 48명
- 일본측 :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이시카와·도야마·후쿠이현, 호쿠리쿠경제연합회·호쿠리AJEC, 도야마현 상공회의소연합회, 가나자와 상공회의소, 후쿠이 상공회의소, (일사)호쿠리쿠경제연구소, 일본무역진흥기구 가나자와무역정보센터, (일사)큐슈경제연합회,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일재)호쿠리쿠산업활성화센터, 학교법인 가나자와공업대학, 일본여자대학, 호쿠쇼(주) 등 66명

2. 주요 성과

- '18년 제 19회 회의 이후,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중단되었던 지역 협력 채널을 지난해 6년만에 복원하였고, 올해 7년만에 일본에서 개최함으로써, 한일관계 정상화와 교류 증진에 기여
- 양국 민간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민간 및 지역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호쿠리쿠) 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본회의에서 민간대표(한일경제협회-호쿠리쿠AJEC)가 체결
-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 ~ 경제연계와 교류의 확대 ~”를 테마로, 양국 회원도시 간 지역 활성화정책 공유 및 자치단체·기업·경제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② 탄소중립·여성활약 DE&A·항만물류 분야의 협력방안 공유 및 제안

- 1) 양국 회원도시의 지역 활성화 정책 공유와 자치단체·경제단체·기업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테마로 하여 ①회원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②탄소중립·여성활약 DE&I·항만물류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 공유·제안 및 공통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 논의

① 한·일 회원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 韓(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日(이시카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적용사례 소개 및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추진전략 및 한일협력방안, ▲경상북도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및 운영방향, ▲대구광역시의 시민중심 스마트 시티·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울산광역시의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및 교통 인프라 강화, ▲이시카와현의 식문화·축제문화의 발신, ▲도야마현의 알루미늄 리사이클 사업 도전, ▲후쿠이현의 한국에 관광영업소 설치 및 프로모션 계획 등 양국 지역활성화정책 공유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탄소중립·여성활약 DE&I·항만물류

- (탄소중립) ▲호쿠리쿠의 탄소중립 대응(산학관·금융 연계 플랫폼 'CNBH'를 통해 지역 기업의 탈탄소 활동을 지원하며 GRP 증대 추구), ▲대구광역시의 시민중심 탄소중립과 광역연계 협력방안(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청정에너지 전환·분산에너지 기술 공유,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등 8G 전략을 통한 지역간 연계와 실질적 협력 추진), ▲한국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성과와 협력방안(배출권 거래제 대응, 저탄소 기술 R&D,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통한 산업계 탄소중립 달성 및 한일 정기 협의체 제안)
- (여성활약 DE&I) ▲호쿠리쿠의 여성활약 현황(호쿠리쿠 기업과 정부의 여성관리직 육성, 장기적·복합적 지원 정책 시행, 온라인 포럼·사례공유를 통해 양국 여성활약 촉진), ▲동진생명연구원의 DE&I 경영 사례(여성 근로자 비율 확대, 연구개발 핵심 역할 수행,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와 브랜드 가치 향상, 정책 교류 등 한일 협력 제안), ▲여성활약과 지역경제(지방 여성 인재 육성, DX화·의식개혁 등 10가지 방법을 통한 여성 참여 확대, 지방 여성 커리어 육성기금 설립 예정)
- (항만물류) ▲가나자와항의 시책(부산항과의 연계, 한일 정기 컨테이너 선로 운영, 항만 이용 촉진 협의회 설립, 공동물류·DX화 등 물류효율화), ▲울산항 경쟁력 및 한일 항만 간 협력(동북아 최대 상업용 탱크터미널 클러스터, 연 1.6억 톤 액체화물 처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의 필요, 그린메탄올·바이오디젤 공급 사례, 한-일 항만 협력 및 교류 방안 모색)

2)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민간대표(한일경제협회-호쿠리쿠AJEC)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과 일본(호쿠리쿠) 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

- 한국 동해안 지역과 일본 호쿠리쿠 지역 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한일 경제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호쿠리쿠 3현이 함께 논의하고, 상호 연대하여 경제교류를 한층 심화시키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

-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본회의를 통해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미래산업과 사회 구조적 과제 해결로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을 마련
- 양국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반도체·철강·자동차·바이오 등 핵심 산업뿐만 아니라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 협력 및 상호 보완적 산업 연계를 통해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함

4) 주요 제언·질문 사항

- ①후쿠이현의 행복도 1위 유지 방안(높은 교육 레벨과 여성 노동자 비율), ②후쿠이현의 한국 내 관광영업 거점 설치 및 프로모션 전개(서울시 기업과 연계 진행), ③대구광역시의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현황(약 4년만에 투자비용 회수 및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견학을 통한 흥미·관심 유발), ④도야마현의 바이오매스 활용(산림 활용, 경제적 측면에서 일부 해외에서 원료 수입), ⑤후쿠이현의 섬유산업 전개 현황(화학섬유, 항공우주 분야 등 첨단섬유와 전통섬유 산업을 함께 전개), ⑥여성인재 지원 관련 문제요소(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남성을 비롯 모두에게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 제고 필요), ⑦양국의 탄소 중립 실현 과정의 어려움과 극복내용(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플랫폼 활용을 추진), ⑧가나자와항과 한국 동해안 지역의 크루즈 관광 교류 가능성 타진, ⑨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호쿠리쿠지역의 활동(도야마현의 알루미늄 리사이클 사례, 후쿠이현의 LNG 변환) ⑩여성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공백 대응방안(회사

차원의 경력관리, 여성 직원 입사 시 미리 대비, 업무의 세분화 필요), ⑪울산항-가나자와항과의 MOU 추진 제안, ⑫한국의 바이오매스 원료(폐식용유를 이용한 지속가능항공유를 활용), ⑬청년 워킹홀리데이 양국 지방도시 유치 방안(급여 및 복리후생 등 제도 점검 및 호쿠리쿠지역의 매력 홍보 필요)

5) 산업시찰

- 한국 측 대표단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인프라 및 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이시카와현립전통공예관, 겐로쿠엔, 가나자와시 21세기 미술관, 이시카와현공업시험장, 가나자와항 크루즈터미널, 학교 법인가나자와공업대학·혁신복합재료연구개발센터(ICC), 호쿠쇼(주) 하쿠산공장을 방문

3. 종합평가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으로 개최된 본 회의에서 양국 자치단체·기업·유관기관 등이 7년 만에 일본에 모여 한일 지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의미한 회의가 되었음**
 - 한일 지역 활성화 정책 공유, 탄소중립·여성활약 DE&I·항만물류 산업 등에 대한 대응·협력 사례 소개 및 향후 연계방안 제안
- **지난 26년간 총 3,331명(한국 1,423명, 일본 1,908명)에 이르는 자치단체·경제단체·기업 관계자 등이 호쿠리쿠 회의에 참가하여 다양한 채널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0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가 약 2.5배 성장하는데 기여함**
 - (교역규모) '00년 543억엔 → '24년 1,339억엔(이시카와·도야마·후쿠이현)
 - (한국과의 무역·산업협력)
 - 2024년 호쿠리쿠지역 수출입 총액 중 對한국 수출입 총액 비중은 **10.7%(1,339억엔/12,442억엔)**로, 중국에 이어 2위 교역대상국
 - 2024년 호쿠리쿠 3현의 수출액 5,965억엔 중 국가·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1,373억엔(호쿠리쿠 3현 수출 총액의 23.0%)이며 2위는 러시아 1,115억엔(동 18.7%), 3위 한국 659억엔(동 11.0%) 임
- **호쿠리쿠 지역경제는 일본 경제 전체에서 약 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와의 교류 비중이 높아 양국의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과 산업 기반을 상호 강화하는 전략적 협력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함**

- 2024년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이 일부 남아 있으나, 복구·부흥 수요와 호쿠리쿠 신칸센 쓰루가 연장 효과 등으로 지역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소득환경 개선 관련 각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가 완만하게 살아나고 있고, 이러한 회복 기반 위에서 우리나라와의 교류는 단순한 양국 협력을 넘어 지역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으로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님

4. 향후 후속조치 사항

- ☐ 양국 모두 미래혁신기술의 발전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차기회의는 FIX(Future Innovation Tech) 개최 기간과 연계하여 2026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함
 - (FIX 분야) 반도체, AI, 스마트제조 등
- ☐ 일본 호쿠리쿠AJEC과 협력하여 제안사항 Follow-up 등 후속조치

〈참고1〉 제21회 한·일(北陸) 경제교류회의 주요 발표내용

구분 (개회 인사)	주요 내용
호쿠리쿠경제연합회 호쿠리쿠AJEC 가나이 유타카(金井 豊)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가나자와시에서 개최하여 기쁘게 생각함, 지난 봄 한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함 ○ 작년 6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20회 회의에서는 한일 지역간 협력을 다지는 중요한 회의였음 ○ 한일은 무역·투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임(2024년 교역 12조엔, 日 對韓 투자 61억 달러, 호쿠리쿠 3현의 對韓 교역 1.3조 엔/4위, 對韓 진출 40여개 거점 보유) ○ 반도체·AI·탄소중립 등 차세대 산업과 항만·물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양국 공동과제인 저출생·고령화(2024년 출산율 日 1.15%, 韓 0.75%)에 대응, 여성 활약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 필요함 ○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호쿠리쿠 간 경제·인적 교류를 심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혁신의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함
한일경제협회 서석송(徐錫崇) 상근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60주년 슬로건과 같이,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지만, 양 기관의 친밀·우호·경제협력을 더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올해로 21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는, 성년이 되는 해로, 한국-호쿠리쿠의 관계가 더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할 것임 ○ 양국 사무국은 실무적으로 민간의 최전선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음
(축사)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데라무라 히데노부 (寺村 英信)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대표단 호쿠리쿠 방문 환영 및 개최지·관계자의 노력에 감사함 ○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으로 등록된 이번 회의가 “보다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 호쿠리쿠 신칸센 연장 효과 : 1.5년 만에 국내외 이용객 816만명 이용 ○ 양국 셔틀외교 재개 이후 첫 한일간 회의로서, 본 회의 개최는 의미가 깊음 ○ 현재 오사카 박람회에 이시카와현의 전통공예를 활용한 earth of night를 전시 중임(노토반도 지진 이후 복구의 상징)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해에 열린 이번 회의가 호쿠리쿠, 한국 양측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원함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金鍾喆) 통상협력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와 전통, IT·기계 등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가나자와에서 회의 개최를 기쁘게 생각함 ○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임 ○ 8월 23일 양국 정상은 반도체·수소·스마트제조업 등 미래산업 협력 및 기업 간 공동 활로 모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 ○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AI·디지털 전환, 수소·해상풍력·LNG 등 신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개척 등이 주요 과제임 ○ 이번 회의는 공급망 연계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기반이 될 것임 ○ 특히 여성 활약은 저출산·고령화, 인력 부족이라는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음 ○ 이번 회의가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함
(개최지 인사)	
이시카와현 상공노동부 니시무라 사토루(西村 聡)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회의가 이시카와현에서 개최됨을 축하하고 환영함 ○ 이시카와현은 전통적 어업, 농업 등 자연이 아름다워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농업유산에 등록됨 ○ 하쿠산, 겐로쿠엔, 와지마누리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서 점진적으로 복구 중이며, 노토반도 부흥에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함

구분	주요 내용
(세션1)	한·일 회원 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 정책
이시카와현 상공노동부 니시무라 사토루(西村 聡) 부장	<p>□ 이시카와현의 지역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 식문화·축제문화의 발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카와현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가가(加賀)요리’ 및 축제에 관련한 설명과, 오사카박람회 기간에 부스를 설치하여 전세계에 이시카와현의 매력을 알리고 있음을 소개 ① 가가(加賀)요리는 전국시대 가가번(加賀藩)과 무가에서 유래한 요리이며, 요리와 함께 그릇(전통공예), 접객방식까지 포함해 가가요리라 부름 7월 말 ‘가가요리기술 보존회’를 설립, 국가 무형문화재 등록을 목표 ② 오사카박람회에도 출전해 이시카와현의 식문화와 축제 이벤트 개최 예정(8/27~)
대구광역시 총무과 김명현(金明鉉) 팀장	<p>□ 지방행정 혁신과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가 전격 도입하여 운영중인 자가통신망 개념 및 추진배경, 구축현황 및 운영성과, 기대효과 및 확산 방안, 자가통신망의 스마트시티 적용 사례 및 호쿠리쿠와의 협력 방안소개 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여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업체와 협업하여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안전,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음 ② 현재 해외에서 대구광역시스마트광통신센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벤치마킹 하고 있어(일본의 경우 히로시마, 고베 등) 호쿠리쿠지역에서의 센터 방문을 적극 지원하여 대구시의 통신망 정책을 공유하고자 함
도야마현 후나네 히데야(舟根 秀也) 이사·상공노동부 차장	<p>□ 순환의 땅, 도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야마현의 전반적인 생활·산업에 대한 설명 및 알루미늄 리사이클 사업에 대한 소개 ① 도야마현은 고저차가 4천미터나 다른 지형을 가지고 있기에 ‘물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좋은 물이 자연 생산되고 있음(지하수, 농업용 수력발전 등) ② 특히 산업면에서 2021년 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19년도 전력소비량을 상회하였으며, 또한 <제약판매에 따른 자본축적→물을 활용한 수력발전→알루미늄 산업에 전기활용>으로 선순환 ③ 이에 도야마현의 강점인 알루미늄 산업을 활용해 알루미늄을 수평 리사이클 하는 Circular Economy 추진에 도전하고자 함 (예 : 신칸센 차체→신칸센 부품으로 수평 리사이클) ○ 도야마현의 한국과의 지역간 교류의 사례로, 후시키도야마항(伏木富山港)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10월 말 개최되는 도야마현 모노즈쿠리 종합 건본시에 한국측의 참가를 제안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이성태(李成泰) 국제교류팀장	<p>□ 울산광역시 지역 활성화 정책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 혁신 및 신성장동력 확보 : 미래 친환경 첨단조선 기술 혁신 지구,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거점, 청정수소 생산활용 연합지구 조성 ② 교통 인프라 및 지역 연결망 강화 : 부산, 양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도시철도(트램) 조성 ③ 문화·관광 및 정주 환경 개선 : 2028 국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세계궁도대회 및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 문화도시 조성 ④ 2028년 본 회의의 울산 개최 대비 및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7년 요코하마 원예박람회 사전시찰 등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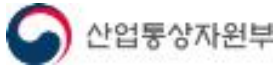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후쿠이현 산업노동부 하세가와 신지 (長谷川 慎司) 부부장	<p>□ 후쿠이현의 산업과 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이현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와 무역현황, 관광산업에 대한 현황과 관광지로서의 후쿠이현의 매력에 대해 소개 ① 후쿠이현은 제조업 비율이 크며 특히 안경과 섬유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한국과의 수출입액은 약 310억엔임. 쓰루가-부산항 화물선이 주 3회 취항 중이며, 올해 한국에 관광영업소를 설치하여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정 ② 후쿠이는 자연과 역사가 절 어울려진 매력적인 관광지이며, 게·소바 등의 미식과 전통공예품이 유명하여 최근에는 신칸센 역사 부근에 숙박시설 등 대규모 투자 중
강원특별자치도 조영준(曹永俊) 국제관계대사	<p>□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구현 전략 및 강원-호쿠리쿠 교류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한일협력방안을 소개 ① 3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래산업 선도도시, ② 찾고 싶은 열린도시, ③ 살고 싶은 쾌적도시 ②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래산업 중심 첨단 산업 육성 ② 장기 불황 대응 '맞춤 성장전략' 추진 ③ 도민이 만드는 기회, 새로운 '지방시대' 구축 ④ 도민께서 누릴 생활의 '만족'과 '안심' ⑤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한 '도민 목소리' 경청 ③ 강원특별자치도-호쿠리쿠 경제협력 방안 : 에너지산업 공동협력, 디지털의료 협력, 향산물류(강원-호쿠리쿠-블라디보스톡) 연계 등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우성룡(禹成龍) 팀장	<p>□ 경상북도 경제산업 구조분석 및 산업대전환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의 경제산업 구조분석 결과*, 주력산업 발전 전략**, 2025년 운영방향***, 한일협력방안***소개 ① *경제산업 구조분석 결과 : 2010년대 들어서 총부가가치 증가율 급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구구조 변화로 제조업 비중 감소(51.0% ➡ 40.7%) ②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이 경북 지역경제 성장에 효과적 ② ** 경상북도 주력산업 발전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대 산업 설정 및 워킹그룹 운영 ② “모빌리티” 부문 산업발전 로드맵 및 주력과제 ③ *** 2025년 산업대전환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북 기술특허 로드맵 분석 ② 10대 산업 특수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④ ***** (협력방안) 중소기업 및 인력 교류, 인구감소 공동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일 중소기업 기술교류 워크숍, ② 경북-일본 청년 인턴쉽 및 지역대학 산업 네트워킹, ③ 인구감소지역 교차 방문 및 대응모델 공동개발

구분 (세션2)	주요 내용
<p>호쿠리쿠경제연합회 미야시타 마나미 (宮下 愛美) 과장</p>	<p>탄소중립, 여성활약 & DE&I, 항만물류</p> <p>□ 탄소중립 대응을 통한 GRP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탄소중립에 대한 동향과 호쿠리쿠 지역의 현황에 대한 설명 ① 2030년도 절감목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10년 간 150조엔 규모의 관민 투자를 모으기 위한 '성장지향형 카본 프라이싱 구상'이 시작됨 ② 최근에는 기업에서 본인의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서플라이체인 전반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 호쿠리쿠 지역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책 소개 ① 호쿠리쿠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아 전국대비 탄소생산성이 낮음. 탈탄소의 흐름이 강해질수록 서플라이체인에서 밀려 산업 클러스터의 약화 및 지역 브랜드력 저하가 생길 수 있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산학관+금융 연계 플랫폼인 'CNBH'(Carbon-Neutral Base Hokuriku)를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와 일체화된 대응으로 공급망 전체에서의 CN추진이 기대되며, 탄소중립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 ② 호쿠리쿠경제연합회와 호쿠리쿠 3현의 금융기관·전력회사 및 지역 수소협회의가 '(가칭)호쿠리쿠 광역권 수소비전'의 책정을 검토 개시(7월) ③ 탄소중립의 실현과 GRP 향상이라는 호순환 창출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음
<p>(재)대구정책연구원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남광현(南光鉉) 센터장</p>	<p>□ 시민중심 탄소중립과 광역연계 협력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의 시민중심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광역 연계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 ① 비전 및 감축목표 :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DAEGU', 45%('30)→100%('50) ② 8G 전략 : Green(이하G) Growth, G-Life Style, G-Cycle, G-Forest & Farm, G-Innovation, G-Energy, G-Mobility, G-City ③ 8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교류 ② 청정에너지 전환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술 공유 및 공동 연구 ③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협력 ④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 교류 ⑤ 탄소흡수원 확대 기술 교류(도시숲, 습지 등) ⑥ 탄소중립 공공플랫폼 공동개발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 데이터 상호 연계 ⑦ 시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공감대 확산 ⑧ 광역 연계형 탄소중립 시범 사업 공동 추진
<p>(사)한국시멘트협회 김의철(金義哲) 이사</p>	<p>□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과 시멘트 산업의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 목표와 동향, 계획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추진 성과와 협력방안을 제시 ①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계의 역할 ②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규제 대응 ③ 산업계의 노력과 기술개발,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 ② 시멘트산업과 탄소중립 그리고 자원순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동향과 향후 계획 ② 한국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기술 R&D 계획 ③ 한-일 시멘트 산업의 위기와 기회 ③ 한국-일본의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일 산업계 탄소중립 정기 협의체 제안 ② 저탄소 기술 공동개발/기술교류, 원료/연료 공동 수급 네트워크 등 ③ 탄소포집 실증사업 공동 추진 등

구분	주요 내용
<p>호쿠리쿠경제연합회 다카하시 아카네 (高橋 アカネ) 과장</p>	<p>□ 호쿠리쿠와 한국에서의 여성 활약 현황과 전망 ~ DEI 추진을 향한 호쿠리쿠의 노력과 연계 가능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활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원인과 한일의 공통지표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일손 부족으로 인해 조직과 사회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리스크가 높아짐 ② 한일 양국 모두 Gender Gap 지수가 세계평균 수준이며, 경제면에서는 특히 여성 관리직 및 경영층 부족이 과제 ③ 호쿠리쿠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여성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관리직 비율은 낮음.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으로, 가정과의 양립, 워라밸 문제가 여성의 승진을 방해 ○ 호쿠리쿠의 여성활약 정책과 한일 연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호쿠리쿠 기업은 하기 정책을 통해 장기적·복합적 지원을 통해 여성활약과 DEI로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층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여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육성·캐리어 형성 지원 : 연수, 멘터링, 캐리어페스 복선화 ② 업무개혁 : 플렉스타임 제도, 가정 양립 지원제도 ② 호쿠리쿠 3현 정부의 행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향 여성관리직 육성 연수, ② 여성활약 서밋 3현 공동개최, ③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③ 호쿠리쿠에서는 사례공유가 기업의 여성활약을 촉진 양국 온라인포럼 개최 및 기업교류 등 정보공유를 통해 여성활약을 가속
<p>(주)동진생명연구원 이창흠(李昌鎔) 대표이사</p>	<p>□ DE&I 경영 ~ 여성의 역량이 이끄는 지속 가능한 성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I 경영이 불러온 변화*, 제도적 기반구축**, 파급효과*** 및 향후계획***** 등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변화* : DEI 경영정책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고 포용한 결과, 특히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연구개발 조직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을 이끄는 주춧돌 역할을 담당함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② 여성 인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태아검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직계 가족돌봄휴가, 대체휴무제, 생일자조기퇴근제 ③ 파급효과*** : 장기근속 이음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됨 ④ 향후계획***** :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예정
<p>가나자와공업대학 연구지원기구 산학연계실 오스나 마사코(大砂 雅子) 교수</p>	<p>□ 여성이 활약해 주는 '10가지' 방법 ~ 여성 활약과 지역 경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여성활약에 대한 현재 문제점을 사회경제학의 시점에서 분석하고 각 현에 거주 중인 여성의 실제사례를 통해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령화로 인해 지방도시는 인구감소 중, 특히 젊은 층에서 여성들의 유출이 눈에 띈다. 이는 단순히 고령화라는 현상만이 문제가 아님 ② 실제 도야마현 출신 2명의 여성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 활약의 필요성을 외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여성이 활약해 줄 것인지 생각해야 함 ○ 여성이 활약해주는 10가지 방법 : ① 좋은 파트너, ② 호의적 차별 해소, ③ DX화와 의식 개혁, ④ 육아는 사회 모두의 일, ⑤ 역할분담주의와의 결별, ⑥ 다양성의 이해, ⑦ 평가방법 개선, ⑧ 관리직의 매력, ⑨ 개인에 대한 조직의 기여도, ⑩ 심리적 안정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성활약을 위한 정부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녀 임금격차 시정, ② 여성 관리직 비율, ③ 고용연수 격차 시정 ② 지방에서 자립한 여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호쿠리쿠지역 이공계 여성 육성 기금' 설립 예정 *사례 : 도요타 여성기술자 육성 기금 ③ 여성활약 부족이라는 양국의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의 공동검토가 필요

구분	주요 내용
이시카와현 항만활용추진실 기타이 요이치(北井 洋一) 차장	<p>□ 국제물류거점을 목표하는 가나자와항 ~ 가나자와항의 시책 ~</p> <p>○ 가나자와항의 개요와 이용 시 메리트 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54년 개항하였으며 부산까지의 거리 약 750km에 위치, 1988년 한일 정기 컨테이너 선로를 개설 태평양에 인접한 항구로 육상수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절감, CO₂ 배출량 절감, 제품관리에 유리 <p>○ 부산항과의 연계 및 가나자와항 이용촉진협의회 설립 등, 가나자와항의 정책에 대한 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8월 부산항과 물류연계에 관한 합의서(MOU) 체결, 가나자와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편수가 많은 부산항과의 관계를 강화 부산항만공사와 연계해 하주 및 선사에 대한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를 활용한 화물 수송 기업을 지원 물류의 여러 과제 해결을 위해, 하주 기업이 주체가 되어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가나자와항의 발전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나자와항 이용 촉진협의회' 설립, 아래와 같은 정책 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주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 다른 항구의 선진사례 조사 트라이얼 사업 등 선진사례를 세미나 등에서 제안 컨테이너 라운드 유즈 등 공동수송 추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김병구(金炳玖) 부장	<p>□ 울산항 경쟁력 및 신사업 협력 ~ 한·일 항만 간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항 현황 및 경쟁력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탱크터미널 클러스터(12개사, 국내 전체 약 50%) 연 1.6억톤(전체 약 2억톤)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4위 액체화물항만 울산항을 통한 연 15백만톤의 한·일 교역 현황 소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중요성 및 필요성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울산항 비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울산항 국내 유일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지정 세계 최초 그린메탄올, 바이오디젤 선박연료 유치 공급 사례('23년) 울산항 향후 인프라 개발방안 및 투자 유치사례 공유 울산항-호쿠리쿠 지역항만 간 일반·액체화물 관련 교류·협력 방안 모색
(차기 개최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김현진(金賢進) 과장	<p>□ POWERFUL DAEG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 대구광역시 개황 및 교통 주요정책 : 대구경북신공항 및 행정통합 경제 : 대구의 경제 및 산업 관광 : 관광 명소, 대구 10미, 축제 글로벌 : 자매우호협력도시, 유네스코도시, 국제행사, 국제교류 마무리 : 내년 FIX(Future Innovation Tech) 개최 기간 연계 개최 예정, 참가 환영

〈참고2〉 제21회 한·일(北陸) 경제교류회의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26.(화) 06:00 < 8.26.(화) 석간 > 배포 2025. 8. 25.(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지난해(한국)에 이어 일본에서 개최

- 한·일 ▲지역 활성화 정책, ▲탄소중립, ▲여성활약, ▲항만·물류 협력 논의
- 차기 회의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와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개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은 8.26(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및 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北陸)·경제교류회의」를 지난해(8.26(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이어 7년만에 일본에서 개최하였다.

* (호쿠리쿠 지역) 도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 3개현

지난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제약 등 바이오산업 및 해양 운송이 발달한 호쿠리쿠 지역에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이 모여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였다.

* (발표 지자체) (韓) 대구, 울산, 강원도, 경북 (日) 이시카와, 도야마, 후쿠이

차기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다양한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미래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nology eXpo, FIX)와 연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26년 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쿠리쿠 외에도 올해 11월 한국 대전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韓-中-日규슈 참여)를 통해 규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박현종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677)



참 고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5.8.26(화) / 日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 주최 : (韓) 산업통상자원부 - (日)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 주관 : (韓) 한일경제협회 - (日) 호쿠리쿠경제연합회·호쿠리쿠AJEC
- 참석 : 韓日 정부·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인 등 114명
- 진행순서

시간	행사 내용	발표
09:30~09:50	접수 및 등록	
10:00~10:40	개회식	
10:40~11:50	세션① 한·일 회원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이시카와현의 지역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 식문화·축제문화의 발신 ~	이시카와현
	지방행정 혁신과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대구광역시
	순환의 땅, 도야마	도야마현
	울산광역시 지역 활성화 정책소개	울산광역시
	후쿠이현의 산업과 관광	후쿠이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구현 전략 및 강원-호쿠리쿠 교류협력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제산업 구조분석 및 산업대 전환 방향	경상북도
11:50~12:20	세션① 질의응답	
12:25~13:15	한·일 양국 공동주최 오찬교류회	
13:25~15:00	세션② 탄소중립, 여성활약 & DE&I	
	탄소중립 대응을 통한 GRP 향상	호쿠리쿠경제연합회
	시민중심 탄소중립과 광역연계 협력방안	대구광역시탄소중립 지원센터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과 시멘트 산업의 성과	(사)한국시멘트협회
	호쿠리쿠와 한국의 여성 활약의 현황과 미래 ~ DE&I 추진을 위한 호쿠리쿠의 대응과 연계 가능성 ~	호쿠리쿠경제연합회
	DE&I 경영 ~ 여성의 역량이 이끄는 지속가능한 성장 ~	(주)동진생명연구원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 여성 활약과 지역 경제 ~	가나자와공업대학
15:00~15:15	커피브레이크	
15:15~15:45	세션② 항만물류	
	국제물류거점을 목표하는 가나자와항 ~ 가나자와항의 시책 ~	이시카와현
	울산항 경쟁력 및 신사업 협력 ~ 한-일 항만 간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울산항만공사
15:45~16:45	질의응답	
16:45~16:55	차기개최지 소개 : 대구광역시	
16:55~17:10	MOU체결식	
17:10~17:30	폐회 및 한·일 양국 대표단 단체 기념촬영	
18:00~20:00	개최지(이시카와현) 주최 환영 리셉션	

산업부, 정상회담 훈풍에 한일 경제교류 협력 확대한다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
민간·지역 간 협력 강화 MOU 체결



[도쿄=뉴스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24. bjko@newsis.com

[세종=뉴스시스]손차민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일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는 26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및 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했다.

또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내년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2026년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와 연계해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쿠리쿠 외에도 오는 11월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통해 큐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지역 산업·탄소중립 협력 논의

한일 협회, 국교정상화 60주년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및 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은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제약 등 바이오산업 및 해양 운송이 발달한 호쿠리쿠 지역에서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차기 제22회 한·일 경제교류회의는 다양한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미래혁신기술 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nology eXpo, FIX)와 연계해 2026년 말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쿠리쿠 외에도 올해 11월 한국 대전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경제·기술교류회의를 통해 큐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6. 나혜윤 기자 freshness410@news1.kr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7년 만에 일본서 개최

한·일간 지역 활성화 정책, 탄소중립, 항만·물류 협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및 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7년 만에 일본(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제약 등 바이오산업 및 해양 운송이 발달한 호쿠리쿠 지역에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이 모여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 논의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MOU도 체결했다.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다양한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미래혁신기술 박람회(FIX)와 연계해 대구광역시에서 2026년 말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쿠리쿠 외에도 올해 11월 한국 대전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韓-中-日규슈 참여)를 통해 규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주경제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열려...지역 활성화 등 머리 맞대

양국 경제인 100여명 한자리...협력강화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과 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제21회 한-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를 7년만에 일본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제약 등 바이오산업·해양 운송이 발달한 호쿠리쿠 지역에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이 모여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양국 대표단은 회원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등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한일 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지역 간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차기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다양한 미래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미래 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nology eXpo, FIX)와 연계해 대구에서 2026년 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호쿠리쿠 외에도 올해 11월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韓-中-日류슈 참여)를 통해 류슈 등 주요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6. 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한일 7년 만에 日서 경제교류회...탄소중립 등 협력방안 논의

차기 경제교류회 대구광역시서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7년 만에 일본에서 경제교류회의를 열고 지역 활성화와 탄소중립 등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등과 함께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탄소중립, 여성 활약 및 다양성, 항만·물류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 측에서는 대구, 울산, 강원도, 경북이, 일본에서는 호쿠리쿠 지역의 이시카와, 도야마, 후쿠이 3개 현이 각자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며 교류했다.

특히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 및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 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다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2026년 말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기 회의는 다양한 미래 산업과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와 연계해 열릴 계획이다.



울산시가 오늘(24)부터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경제 활성화 정책과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이번 회의에서 울산시는 산업 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 방향 등을 제시합니다.

호쿠리쿠는 이시카와 등 일본 3개 현이 있는 곳으로, 중공업과 바이오산업이 발달해 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2025.08.24.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울산시가 일본 북동부 4개 현이 속한 호쿠리쿠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오늘(8/24)부터 27일까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국·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항의 비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발표합니다.

회의에는 한일 두 나라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환동해권 항만 물류 사업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5.08.24. 최지호 기자 choigo@usmbc.co.kr

울산항만공사,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전략·비전 발표



울산항만공사 한일경제교류회의의 참가해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기반 확대에 나섰다. (사진은 26일 세션참가)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도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日 호쿠리쿠와 협력 강화…교류회의서 산업전략 발표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비전 공유…2028년 울산 회의 유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24~27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비전 등을 발표한다.

이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정책,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 교통 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다.

또 울산항만공사가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호쿠리쿠는 동해를 바라보는 일본 혼슈 북부 지역의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등 3개 현이 있는 곳이다.

호쿠리쿠는 일본 내 경제 비중이 약 3% 수준이지만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 등 바이오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경제 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과 호쿠리쿠 3개 현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과 투자, 산업기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자 열고 있다.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열고 있다. 2018년 제19회 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울산은 2028년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회의를 유치할 예정이다.

경상일보

울산항만공사-日 호쿠리쿠, 항만·물류 협력 강화한다

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
울산항 경쟁력·미래 전략 공유
UPA, 친환경 에너지 물류 선도



▲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교류회의에서 울산항의 경쟁력과 미래비전을 소개했다. 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사장 변재영)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며 글로벌 교류의 발판을 다졌다.

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에 울산시와 함께 참가해 울산항의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대거 참석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UPA는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항만 간 협력 과제 발굴 △일본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한 세일즈 전략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별도로 ‘지역 활성화 정책’ 세션에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울산의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변재영 UPA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친환경 비전과 경쟁력을 알리고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실질적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UPA는 이날 정부 핵심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울산항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다.

UPA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항만 물류 현장의 스마트화 촉진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체계 등을 마련해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5.08.28. 오상민 기자 sm5@ksilbo.co.kr

경상일보

울산시-일 호쿠리쿠, 경제 활성화 모색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
지역 활성화·항만물류 등
경제·산업협력 강화 논의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에 참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해’를 주제로 진행되는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 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이다예 기자 ties@ksilbo.co.kr

국제뉴스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의 울산항 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한일경제교류회의의 참가해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26일 세션참가)

(울산=국제뉴스) 주영곤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항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도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한일경제교류회의의 참가해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26일 세션참가)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주영곤 기자 news0024@naver.com

국제뉴스

울산시,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참가...울산항 비전 발표

24일~27일, 지역경제·항만 이상(비전)과 협력 방안 공유
울산시,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2028년 회의 유치



(사진=국제뉴스DB) 울산시청

(울산=국제뉴스) 주영곤 기자 =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늘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이상(비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인프라)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울산·대구·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개 현(후쿠이·이시카와·도야마)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 및 산업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울산은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를 유치한다.

호쿠리쿠 지역의 경제규모는 일본 전체 경제 비중의 약 3%를 차지하고 자동차·산업·건설기계·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생명(바이오)산업이 발달해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25.08.24. 주영곤 기자 news0024@naver.com

국제신문

울산시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한다

24~27일 가나자와시 개최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 참가
한일 양 지자체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130여 명 참석 협력방안 논의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24~27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비전 등을 발표한다.



일본 호쿠리쿠 지방 위치.

호쿠리쿠는 동해를 바라보는 일본 혼슈 북부 지역의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등 3개 현이 있는 곳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환 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정책,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 교통 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다. 또 울산항만공사가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호쿠리쿠는 일본 내 경제 비중이 약 3% 수준이지만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 등 바이오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경제 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과 호쿠리쿠 3개 현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과 투자, 산업기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자 열고 있다.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열고 있다. 2018년 제19회 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울산시는 2028년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회의를 유치할 예정이다.

2025.08.24.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울산항만공사,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울산항만공사가 한일경제교류회의의 참가해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기반 확대에 나섰다. 사진은 26일 세션참가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 "협력 강화"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 인프라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신문

UPA,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항만공사 김병구 부장이 울산항의 60년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도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문화, 관광, 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8.29. 이경성 기자 bluestone@klnews.co.kr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사진=울산항만공사)

민주신문=이예림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도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 제공=UPA)

[울산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항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UPA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울산시,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 경제·항만 협력 강화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시청.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울산시는 24~27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비전 등을 발표한다.

경제 교류회의는 울산·대구·강원·경북 동해안 4개 지역과 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 일본 호쿠리쿠 3개 현이 무역, 투자, 산업기술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위해 열고 있다.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 정책, 항만 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 교통 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다. 또 울산항만공사가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2028년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회의를 유치할 예정이다.

2025.08.24.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학계·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울산항만공사

또한 울산광역시도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PA, '한·일 경제교류회의' 시 울산항 경쟁력·비전 발표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협력 기반 구축



26일 일본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서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한 공사 관계자가 울산항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UPA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UPA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제21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

24~27일, 지역경제·항만 비전과 협력 방안 공유
시,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 2028년 회의 유치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인프라)과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울산·대구·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개 현(후쿠이·이시카와·도야마)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와 산업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울산은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호쿠리쿠(경제교류) 회의를 유치한다.

호쿠리쿠 지역의 경제 규모는 일본 전체 경제 비중의 약 3%를 차지하고 자동차·산업·건설기계·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생명(바이오)산업이 발달해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양산신문

울산항만공사,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 및 미래 비전 발표



[양산신문 강영진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도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7. 강영진 기자 stkitty1535@naver.com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 발표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참가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제공=울산항만공사)©열린뉴스통신ONA

(울산=열린뉴스통신) 이정희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UPA는 이 자리서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어,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과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호쿠리쿠 지역, 경제·산업 협력 강화

시,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지역활성·울산항 미래 비전 발표



울산시는 24일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 참가해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주요 인프라 시찰인 이시카와현립 도서관 등을 시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 인프라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울산·대구·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개 현(후쿠이·이시카와·도야마)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 및 산업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울산은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를 유치한다.

호쿠리쿠 지역의 경제규모는 일본 전체 경제 비중의 약 3%를 차지하고 자동차·산업·건설기계·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달해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울산시,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 경제·산업 협력 도로

시,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지역활성·울산항 미래 비전 발표



울산시는 24일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주요 인프라 시찰인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등을 시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이상(비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인프라)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허브)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동해안 4개 지역(울산·대구·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개 현(후쿠이·이시카와·도야마)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 및 산업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해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왔다. 울산은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를 유치한다.

호쿠리쿠 지역의 경제규모는 일본 전체 경제 비중의 약 3%를 차지하고 자동차·산업·건설기계·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생명(바이오)산업이 발달해 미래 신산업 협력 잠재력이 높고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UPA,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경쟁력·비전 발표

인프라 개발·투자유치 사례 등 공유
 "친환경 에너지 물류 선도위해 협력"



울산항만공사는 한일경제교류회의의 참가해 울산항 경쟁력 및 비전을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기반 확대에 나섰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 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



울산시는 26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 경제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2025.08.26. 울산신문 news@ulsanpress.net

울산제일일보

UPA,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울산항 미래비전 공유

울산항만공사(UPA)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UPA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7. 이정민 기자 <http://www.ujel.com>

울산제일일보

울산시,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울산항 미래비전 공유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에 참가하고 있는 울산시 대표단이 문화시찰 행사로 도서관을 방문해 양국간 우호협력을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를 주제로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지역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울산형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등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교통기반 및 지역 연결망 강화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울산항의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 전략을 소개한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2000년 일본 도야마시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울산시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를 유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4. 정인준 기자 <http://www.ujel.com>

울산제일일보

일본과 교류 폭 넓히는 울산사-울산대

8·23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우호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울산과 일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간 교류협력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있다. 울산시는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 울산대는 일본 후쿠오카 대학과 소통의 물꼬를 트는 일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가 경제·산업 협력의 손을 내민 곳은 일본 호쿠리쿠(北陸) 지역이다. 호쿠리쿠는 우리 동해를 바라보는 일본 혼슈 북부의 니가타현과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으로 구성돼 있다. 시에 따르면 호쿠리쿠는 일본 내 경제 비중이 약 3% 수준이지만 자동차, 산업·건설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과 제약 등 바이오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미래 신산업으로 손잡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울산시는 24~27일 호쿠리쿠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 교류회의’에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 비전을 발표한다. 이 회의에는 한일 양국 지자체와 항만·물류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한층 더 깊다.

회의 주제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로 정해졌다. 회의에서는 환동해권과 호쿠리쿠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정책, 항만물류사업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울산시는 ‘지역 활성화 정책’이란 주제로,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거점 울산항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경제교류 회의는 우리 동해안 4개 지역(대구·울산·강원·경북)과 호쿠리쿠 3개 현(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현)이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 자원을 상호보완해가며 무역과 투자, 산업기술 분야에서 교류를 넓히려고 해마다 번갈아 열고 있다. 2000년 일본 도야마 시에서 처음 열렸으나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 다시 열렸다.

대학 차원의 교류도 활발하다. 울산대학교는 지난 20~22일 3일간 산학융합지구캠퍼스 미래융합관에서 일본 후쿠오카대학 화학과와 학술교류회를 가졌다. 두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등 41명이 참가한 이번 교류회에서는 학술 세미나와 최신 연구 발표 4건이 진행됐다. 두 대학 학생들은 구두·포스터 발표를 통해 활기차게 토론을 이어가며 학문 교류의 폭을 넓혔다.

한일 두 대학은 2005년 첫 교류를 시작으로 해마다 상호방문 형식으로 교류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대 교수와 학생들이 후쿠오카대를 찾았고, 올해는 후쿠오카대 화학과 교수 3명과 학생 17명이 울산대에서 학술 교류도 하고 우의도 다졌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교류가 양교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학문적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동호 울산대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의 말이다. 사실 한일 도시 또는 대학 간 교류협력의 숨은 힘은 정부도 하지 못 할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만든다고 믿는다. 3년 뒤에 열리는 한일 지역경제 교류 회의가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에 때맞춰 꼭 울산에서 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울산제일일보

UPA,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울산항 미래비전 공유

울산항만공사(UPA)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리는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경쟁력 및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UPA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2025.08.27. 이정민 기자 <http://www.ujel.com>

울산항만공사,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 한·일 지역항만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기반 구축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달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울산항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달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21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에 참가해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울산항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각 지역의 정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회의 중 ‘항만물류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의 현재 운영 현황 및 경쟁력 △친환경 선박연료 및 바이오 연료 기반 항만 조성 계획 △울산항과 일본 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 가능성 △일본 지역 신규 물동량 유치 전략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사례 등을 발표했다.

울산광역시도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 구조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자원 개발,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역 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울산항과 일본 지역 간 항만·물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울산항만공사, 한일 경제교류회의서 울산항 비전 발표

차기 경제교류회 대구광역시서 개최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4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개막된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에 참가, 울산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울산항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울산항만공사 관계자가 울산항 경쟁력 부문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 등이 참가해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항만물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 세션' 연사로 참여해 △울산항 현황과 경쟁력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선박연료 거점항만 비전 △울산항-호쿠리쿠 지역 항만 간 협력사항 발굴 △일본 신규 물동량 확보 세일즈 △향후 인프라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회의는 울산항의 경쟁력과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8/27(水) 黒コクシンブン(北國新聞)

賞書を交わした北陸AJECの金井会長(右)と徐副会長

金沢市内のホテル



日韓交流促進へ覚書

北陸AJEC、金沢で締結

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北陸AJEC)と韓日経済協会は26日、金沢市のANAクラウンプラザホテル金沢で地域経済の発展に向けた覚書を結んだ。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を期に、北陸三県と韓国東部の4自治体との経済交流をさらに促進することを確認した。

同ホテルで開かれた「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で、北陸AJECの金井豊会長と韓日経済協会の徐錫崇副会長が署名した。

徐錫崇副会長が署名した。金井会長は「交流を深め、新たなビジネスやイノベーションの芽が出ることに期待したい」と述べた。

会議には両国の自治体や経営者ら約110人が参加し、地域活性化や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女性活躍などの取り組みを紹介した。会議は2000年に始まり、今年で21回目となった。来年は韓国・大邱で開かれる予定。

8/27(水) きたにほんシンブン(北日本新聞)

基本合意書に署名した金井氏(右)と徐氏一金沢市



交流促進へ合意書

北陸・韓国経済会議

北経連と北陸AJEC

北陸経済連合会、北陸AJECによる「第21回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が26日、金沢市のホテルで開かれた。北陸と韓国の企業、自治体から約110人が出席し、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CN)や女性活躍をテーマに意見を交わした。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を迎えたことを契機として、経済交流促進に向けた基本合意書も締結した。

日本側は、北経連の会員企業や北陸の経済団体、自治体などの担当者が参加。韓国側からは、交流の窓口となっている韓国の社団法人・韓日経済協会や企業、江原特別自治道や大邱広域市など韓国東海岸の4自治体の約50人が訪れた。

基本合意書の締結式が行われ、北経連の金井豊会長(北陸電力会長)と韓日経済協会の徐錫崇副会長が署名した。

会議はCNや女性活躍のほか、港湾物流、自治体の地域活性化策というテーマごとに、日韓双方から取り組みが紹介された。CNについて、韓国側から「韓国東海岸と北陸は製造業が中心で産業構造が似ている。共同事業を進められる」との指摘があった。会場から質問や提案が相次ぎ、北陸の経営者が「北陸と韓国東海岸の港を巡るクルーズ船ツアーの誘致に向けて協力したい」と呼びかけた。

交流会議は北陸と韓国で交互に開いており、2026年は韓国・大邱で行う。

8/27(水) 호쿠리쿠츄니치신문(北陸中日新聞)

北陸と韓国 経済交流さらに

金沢 産官学会議で覚書

北陸3県と韓国の日本海側地域の産官学による第21回北陸・韓国経済交流会議が26日、金沢市内で開かれた。今年の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に合わせ、両地域の経済交流をさらに促進するため、開催団体の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北陸AJEC)と韓国経済協会が覚書に調印した。

北陸AJECの金井豊会長はあいさつで、北陸の主要産業である生産用機械や電子部品などの製造業、ソフトウェアなどの情報産業といった分野で「相互に補完する関係を深めていく」とが肝要だと強調。韓日経済協会の徐錫崇副会長は、日韓関係の悪化やコロナ禍を経て昨年、6年ぶりに会議を再開したことを踏まえ、今後も地域間交流を進める意欲を示した。

3県と韓国の自治体の担当者が産業や観光の活性化策などを紹介。北陸経済連合会の担当者と韓国の研究者らが、二酸化炭素(CO₂)の排出削減ゼロを目指す説明した。(平野誠也)



北陸・韓国経済交流会議で記念撮影に応じる関係者＝金沢市で

8/27(水) 일간공업신문(日刊工業新聞)

北陸・韓国経済交流会議

北陸AJECなど 金沢市内で開催

【金沢】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北陸AJEC)、金沢市、金井豊会長は「北陸電力会長」と北陸経済連合会は26日、第21回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を金沢市内で開いた。2025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に当たることから、同会議が両国の公式記念事業として認定された。金井会長は「北陸3県と韓国が経済交流を一層深め、新たなビジネスやイノベーションの芽が生ま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あいさつした。

中部経済産業局の寺村英信局長、韓国産業通商資源部のキム・ジョンチヨル通商協力局長ら政府機関や自治体、経済団体、企業の関係者として日本側66人、韓国側48人が参加。両国は少子高齢化などの共通課題も多く、地域活性化策や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温室効果ガス排出量実質ゼロ)などをテーマに事例を紹介。活発に議論した。

北陸AJECと韓国経済協会は地域経済の活性化と経済交流の促進を目的とした覚書に調印した。次回は韓国・大邱広域市で開く。



第21回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に参加した日韓関係者

8/27(水) 후쿠이신문(福井新聞)

日韓企業の連携探る 北経連など交流会議

金沢

北陸3県と韓国の日本海側地域の産官学関係者が会する「第21回北陸(日本)・韓国経済交流会議」が26日、金沢市内のホテルで開かれた。北陸と韓国の自治体や企業の連携強化に向けた方策などを議論した。

北陸経済連合会と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議会(北陸AJEC)が主催し、2000年から北陸と韓国で交互に開催している。今回は外務省から「日韓国交正常化60周年記念事業」に認定され、両国政府の公式記念事業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

会議には約110人が参加した。日韓の経済団体や大学などが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や女性活躍、港湾物流などをテーマに、広域連携について議論。「先端産業のサプライチェーン構築や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など未来志向の経済協力が重要」となどの意見があった。

北陸AJECと韓国経済協会が地域経済の活性化と経済交流促進を目的とした覚書に調印した。

両国の自治体が地域活性化政策についての発表もあり、福井県からは長谷川慎司産業労働部副部長が「福井県の産業と観光」と題して紹介。北陸新幹線開業などで福井への観光客が増えている状況や、県立恐竜博物館や食などの魅力を説明し「両国の交流がますます盛んになることを期待。福井にぜひ来てほしい」とアピールした。(多田昌弘)



北陸と韓国の経済連携などについて話し合った交流会議。26日、金沢市内のホテル